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10월 두 번째 28권 18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콜럼버스데이의 의의와 연원
837수송대대 유엔묘지 단장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503보병연대 1대대

6면 문화 공간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한지혜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Pvt. Daniel Love/ Eighth Army PAO

워싱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미8군 요원들 10월 6일 미 육군협회 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비에 올해의 미8군 부사관 James Engel 병장, 올해의 카투사 조성환 병장이 헌화하는 모습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Leon J. LaPorte 대장(오른쪽)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켜보고 있다.

제1회 전우마라톤 화합의 레이스

창군 이후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열린 제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회가 12일 6600여 명의 민/관/군 참가 선수와 가족 등 총 1만5000여 명이 축제의 물결을 이룬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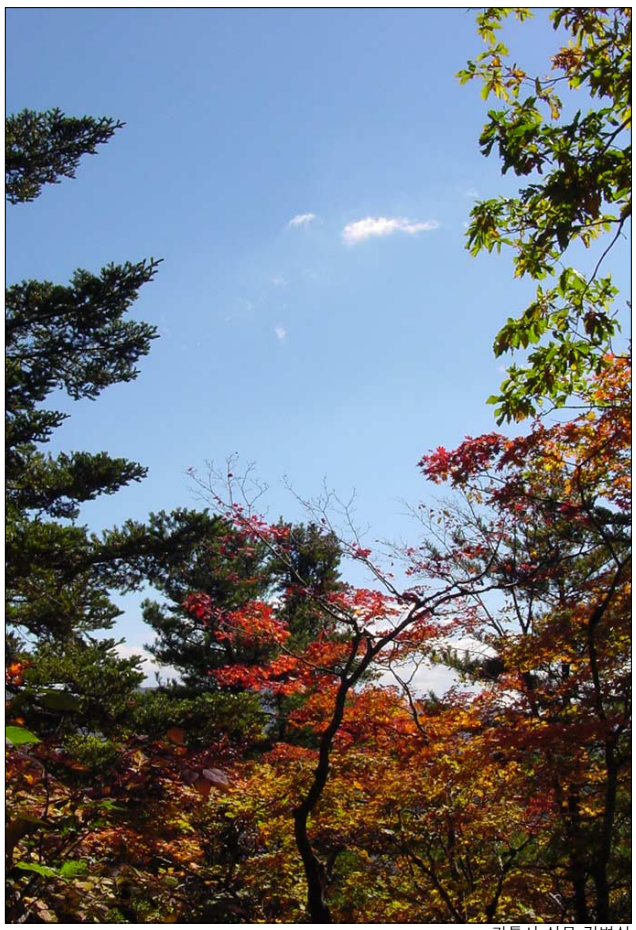
현역/일반/여성부로 구분해 출전한 6600여 명의 선수는 통일로를 힘차게 달리며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유감없이 보여줘 "민/군 축제 한마당"의 의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날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회는 국방부 차원에서 주최하는 최초의 마라톤대회로 한미 양국 장병은 물론 예비역과 일반인도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군 화합과 한미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조장관은 이어 "이번 마라톤대회가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튼튼한 국방태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열리게 돼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준범 국방홍보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우마라톤대회는 현역과 예비역이 함께 달리며 전우애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자 한국군과 주한 외국군이 함께 달리며 우의를 다지는 국제 친선교류의 장, 분단을 넘어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통일 염원의 장"이라며 "앞으로 주한 외국

2면으로 계속...



카투사 신문 강병삼

가을이 한창 강원도 오대산 중턱에서 단풍과 함께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

콜럼버스 데이의 의의와 연원

카투사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가 기념일들은 단지 휴일의 연장으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러한 기념일들이 우리와 함께 근무하는 미군 동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들과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를 맞아 각 미군 부대에서 열렸던 행사들은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대부분의 카투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콜럼버스 데이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날"이라고 말한 8헌병여단 작전과 Patrick Oconnor 주임원사는 "당시 그 자신은 몰랐겠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미국 탄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날이 갖는 의미를 밝혔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용산 사우스포스트 컬리어필드에서 열린 콜럼버스데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림보게임을 하고 있다. 행사는 게임 외에도 한국 연예인들의 축하공연, 복권추첨, 마술쇼 등으로 꾸며졌으며 성대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콜럼버스 데이는 이탈리아의 항해자였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미국 외에도 캐나다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거나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벌인다. 정식으로 이 날이 축일이 된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지 정확히 300년 후인 1792년부터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을 건너는 항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 직접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직항로를 주장한 선각자였다. 결국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의 원조를 받아 1492년 대서양을 건너고 네 번의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다. 그의 이 발견은 당시의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강림과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평가받는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는 그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갖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으나, 이를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가 미국의 주요 기념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들이 이들의 기념일을 이해하고 또 함께 축하할 때, 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상병 장승모

부산 유엔묘지에 깃든 정성

상병 홍영기 / Area IV 공보실

유엔묘지를 정리하는 부산의 837수송대대 장병, 군무원들

지난달 27일 부산 837수송대대는 남구에 있는 유엔묘지를 찾아 청소하고 정리하며 존경심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흔적을 치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군인 가족들과 한국인 군무원들도 이에 참여하였다.

837수송대대 선적계획장교 Courtney Brooks 대위는 "전쟁에서 싸웠고 지금은 여기에 묻힌 분들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또한 한국인들과 우애를 쌓을 수 있었고 대대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태풍 피해를 정리하는 것 이외에도 벌초를 하고, 화환을 재정리하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였다.

837수송대대는 올해 봄에도 묘지를 찾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2번씩, 봄과 가을에 걸쳐 이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UN 묘지는 1951년 1월 18일 유엔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터를 기증했으며, 현재 22개국 2299명의 전사자가 잠들어 있다. ■

상병 홍영기/ Area IV 공보실

전우마라톤

1면에 이어서...

군과의 우의를 더욱 다지는 국제 군인 마라톤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로 순환코스(임진각 - 통일로 - 통일대교 - 임진각)에서 벌어진 하프코스(21.0975km) 부문에서는 김종필(34/특전사)상사가, 건강달리기(5km) 부문에서는 이현수(25/육군부사관학교)중사가 현역부에서 우승하는 등 영광의 주인공들이 탄생,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인기 코미디언 '뽀빠이' 이상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이 밖에 국방부 군악대의 축하연주, 국군방송 '위문열차'의 민/관/군 특집공연과 국방부 의장대 시범공연, 연예인 팬사인회, 전우사랑 문구작성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참가선수와 가족 모두가 풍성한 가을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목발을 짚고 레이스를 펼친 이희완 해군대위를 비롯한 22명의 서해교전 영웅과 300여 명의 외국군 장병,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씨, 인기가수 홍경민, 인순이,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해 화제를 모은 김봉춘 육군중령 부부 등이 대거 참가해 레이스 구간마다 감동의 물결을 수놓았다. ■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창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3/7998(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angbys@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강병삼
기자
상병 장승모
이병 김택현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CPT Mary J. Constantino
Editor
CPL Kang, Byung Sam
Staff Writers
CPL Jang, Seung Mo
PV2 Kim, Taek Hyun
Special Assistant
Mr. In, Pu 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7886(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angbys@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angbys@usfk.korea.army.mil

■군상식

구룡

대한민국의 130mm 36 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은 1980년대에 개발되고 배치되었다. 구룡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한국 해병을 위해 설계.제작되었으며 사단급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제공사진

로켓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구룡

구룡은 간접조준사격용의 시스템으로 수초내에 적의 중요한 목표에 즉각적이고 밀집된 화력을 집중시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이다.

6륜구동의 5톤 트럭에 탑재된 구룡은 동급의 어떠한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발사장치는 방위각 조정, 사각과 안정판용 잭의 작동을 위해 수압모터를 사용하지만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지원용 5 톤 트럭에는 로켓탄 수송용 플랫폼을 장비하여 72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다.

구룡에는 기본적인 포탄과 성능을 향상시킨 두가지 형태의 로켓탄이 사용된다.

기본탄은 전장이 2.4 미터 중량이 54 kg 이며 업그레이드탄은 전장 2.54 미터, 중량이 64 kg 이다. 두 가지 모두 21 kg 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며 재래식 고폭탄이나 16,000개의 작은 강철 구슬이 내장되어 있는 비산탄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탄의 사거리는 22 km 이며 업그레이드탄은 30 km 이다.

운전석의 화력통제 장치를 이용하여 단발 발사, 단속적인 발사 또는 연속발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0.5초 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K200A1

K200A1는 적의 포화속에서 보병 분대를 수송하기 위한 장갑차이며 장갑으로 보호되는 내부에서 사격구를 통해 사격을 할 수 있으며, 포수와 차장의 포탑에 장착된 50CAL, 30 기관포의 엄호를 받으며 하차할 수 있어 전장에서의 보병의 기동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비이다.

조종수, 포수 및 차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완전 무장한 보병을 수송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 시속 70km, 정지 상태에서 32km 까지 가속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6.5 초로(K200 모델은 10초) 초기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장갑차이다.

수륙양용이며 수상에서는 무한궤도의 회전을 추진력으로 시속 7km 의 속도를 낼 수 있어 별도의 도하 장비 없이도 작전에 임할 수 있어 기동성면에서 매우 우수한 장비이다. 이 우수한 기동성은 13.2 톤의 전투중량하에서 톤당 26.5 마력을 낼 수 있는 35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 덕분이다.

K200A1의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 및 주변장치들은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지상 기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기동성은 보다 적은 정비시간과 장비의 높은 신뢰성에 기인한다.

K200A1의 주요성능 및 제원

<기동성>

- 350 마력 동급 최고 출력 엔진
- 완전 자동 정유압식 변속기
- 70km/h의 최대 노상속도 및 7km/h 의 최대 수상속도(수륙양용)
- 26.5마력/톤으로 동급 최대의 톤당 마력

<화력>

- 12.7mm의 주무장
- 7.62mm의 부무장

<생존성>

- 유격 장갑을 통한 측면 방호력 향상
- 자동소화장치 탑재
- 양압장치 탑재로 화생방전 승무원 보호

<기타>

- 국내 독자개발을 통한 안정적 부품 지원
- 국내 독자개발에 따라 해외수출 가능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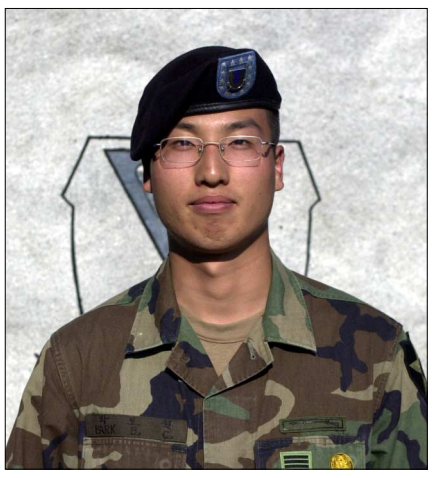
국내 독자개발로 생산된 K200A1

카투사들의 한마디

내가 추천하는 책!

503보병 1대대 본부중대
일병 고범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던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접하였다. 이 책은 이야기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을, 마음속 그대에게 편지를 써 보는 것이 어떨까? '...누구에게 무언가를 적어보고 싶다는 기분이 든 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로서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503보병 1대대 B중대
병장 박보철

군생활동안 많은 책을 읽으리라 다짐했건만, 정작 그 수를 헤아려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중, 요즘 재미나게 본 것은 '내 생애의 아이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삭막하고, 감정이 메마를 수 있는 이 곳에서, 이 책은 풋내기 교사의 솔직하면서도 배려 깊은 아이들의 사랑을 보여주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해준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요즘, 이 책을 통해 밋밋한 내 안의 열정이 다시 피워나길 기대해 본다.

503보병 1대대 C중대
병장 김영관

얼마 전 군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준 책이 있다. '멋진 신세계(Bravely New World)'. 작자가 그리는 미래의 유토피아는 '소마'를 먹고 우울증을 치료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다. 물질문화와 기계문명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그 비극적인 모습이 요즘의 시대상과도 어쩌면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기도 한 그런 책. 조지 오웰이 '1984 년'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권할만한 책인 것 같다.

503보병 1대대 본부중대
상병 박성하

공학도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천재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의 강의록 중 일부인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파인만 특유의 재치와 유머,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쉽게 접근하기 힘든 물리학의 현상 및 법칙을 극히 평범한 일상 생활로부터 이끌어내어 설명하고 있어 이공계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503 보병연대 1 대대

1ST BN, 503D INF REGT

붉게 물든 노을을 향해 길게 뻗어있는 길. 한 손에는 소총을 들고 무거운 군장을 등에 멘 채 행군하는 군인들. 이는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한여름의 작열하는 태양이나 한겨울의 살을 에는 추위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군인들의 행군 모습은 언제 보아도 멋지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또한 위장크림을 얼굴에 잔뜩 바른 채 숲을 헤쳐나가는 모습 또한 멋진 군인의 표상이다. 카투사들 중에는 이러한 일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위험천만한 훈련들을 일상적으로 해내는 이들이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군의 선봉이 될 503 보병 1대대의 카투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503보병 1대대는 다섯 중대-본부중대,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로 나뉘어져 있고 이 부대의 카투사들은 각 중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503 보병 1 대대 본부중대는 인사과, 정보과, 작전과, 군수과 등의 일반 소대 외에도 수색 소대나 박격포 소대와 같은 전투부대가 있다. 수색 소대의 주요 임무는 전투시 적을 수색하여 보고하는 것과 발견된 적을 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박격포 소대는 81mm 박격포를 주무기로 사용하는데 후방에서 예하 중대를 사격 지원한다.

제공사진

부대의 성격상 503 보병 1 대대의 주축은 대부분 소총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A, B, C 중대이다. A, B, C 중대는 모두 비슷한 인원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중화기 중대로, 갖가지 신형대체 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가량 훈련을 나가는데 각 중대는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적 벙커 공격 훈련시에는 실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도 하며, 공중강습 훈련시에는 실제 헬기를 이용하여 침투, 가상 적군과 교전하기도 한다. 야간 투시경이나 야간 조준경, 방독면, Dragon 대전차 화기 등 전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대 차원의 공중강습 훈련시에는 항공대에서 40여대의 헬기를 지원 받아 대대원 전체와 차량을 헬기로 이동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훈련이 없는 기간에도 부대원들은 대기조(QRF: Quick Reaction Force)라고 하여 무기 정비점검을 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다. 또한 야전훈련을 마치고 돌아와도, 부대 내에서 훈련시 하는 일들을 복습하는 등 다가오는 훈련을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D중대의 경우, 다른 중대가 대부분 소총병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토우(TOW: 대전차미사일)병으로 구성된다. 이 중대는 대전차 무기의 토우와 MK-19, 50CAL (12,7mm 기관총)로 무장한 중화기 대전차 중대로, 보통 A, B, C 중대의 후방에서 사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503보병 1대대 카투사들은 일년의 삼분의 일 이상을 야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모든 훈련이 다 고되지만 특히 한겨울에 받는 훈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는 A중대 선임병장 신철민 병장은 "겨울에도 취침할 때에만 텐트에서 자기 때문에 하루종일 칼날 같은 바람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Strike Thrust' 라는 겨울훈련 때였습니다. 하루종일 찬바람을 쐬며 이동도 하지 않고 있다보니 부대원들 모두 손이 차차 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몇몇은 감각을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사격을 해야 했는데 모두들 손이 얼어서 탄창조차 잘 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좋은 추억입니다."

503보병 1대대 카투사들은 부대 내에서 미군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그만큼 카투사들의 근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대의 카투사 중 상당수가 전투복에 우수보병기장을 달고 있었는데, C중대 선임병장 김영관 병장에 의하면 우수보병기장 시험에 응시하는 미군들 중 30% 정도가 실제로 기장을 획득하는데 반해, 카

제공사진

투사의 경우는 60% 정도가 획득한다고 한다.

"우수보병기장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PT와 사격 모두 마스터여야 함은 물론이고, 주, 야간 독도법(Land Navigation) 시험도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내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20km 행군을 통과해야 비로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수보병기장 시험은 총 36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뉘는데 불합격 항목이 세 개 이상이 되면 최종 불합격 처리되는 매우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부대의 성격상 PT 역시 매우 중요시된다고 한다. 부대원들이 대부분 PT 마스터이기 때문에 503보병 1대대에서는 PT 마스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대 평균이 280점을 상회하고 30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는 부대원들도 다반사이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전투 PT(Battle Focus PT)라고 하여 방탄조끼를 입고 달린다거나 D중대의 경우 그들의 주화기인 50CAL를 들고 달리는 등 다른 부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된다고 한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20마일 행군을 하거나 부대를 감싸고 있는 소요산 정상을 오르기도 한다.

503보병 1대대 카투사들은 부대 내에서 땀흘리며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각 중대의 선임병장이 통솔하여 중대별로 미군과 카투사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데, C중대의 경우는 최근 놀이공원 방문과 래프팅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고 한다. 또한 503보병 1대대는 부대 근처의 보영여자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주 목요일 오후,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A중대 김동화 병장은 "전공이 영어교육과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영어를 쉽게 배우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503보병 1대대의 카투사들이 부대 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미군들은 카투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503보병 1대대 카투사들은 모두들 모범적인 군인"이라는 본부중대 수색소대 Shawn Davis 일병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에 놀랐고,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이 곳 카투사들에 대해 말했다.

503보병 1대대 C중대를 이끌고 있는 John Keefer 주임상사 역시 카투사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군과 같이 주특기 교육을 받고 전입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투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을 빨리 배우고 또 잘 합니다. 모두들 의욕이 넘치고 매우 부지런히 근무를 합니다. 이는 많은 미군들이 카투사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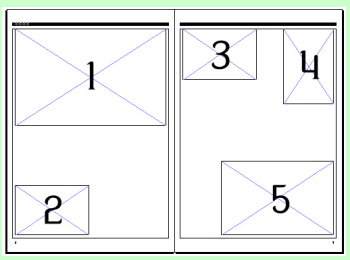
전투부대에 당당히 지원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미군들로부터 인정받는 503보병 1대대 카투사들은 따라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본부중대 수색 소대 소속의 장형욱 상병은 "훈련을 나가면 수색 소대가 항상 앞장서고 적을 발견할 시에는 가장 먼저 무찌른다"며 "선봉에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본부중대 박격포 소대의 박성하 상병 역시 "박격포는 그 화기 특성상 수학이 이용된다"며 "이와 관련해 카투사들이 미군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카투사의 우수성을 입증시킬 수 있어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피력했다.

단 하루였지만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군인, 아니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었고, 움직임 하나 하나에는 자신감이 베어 나왔다. 남자의 눈으로 봐도 '아, 멋지다!'라는 탄성을 자아낼 정도였다. 2년이라는 군복무 기간,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 모두에게 주어진 이 기간동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무엇을 얻어 가는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러한 면에서, 취재를 마친 기자를 배웅한 후 돌아서는 503보병 1대대의 카투사들의 뒷모습이 기자의 눈에는 새삼 커 보였다. ■

상병 장승모



1. 본부중대 정찰 소대 소속 저격수 장형욱 상병(왼쪽)과 Anthony Johns 일병이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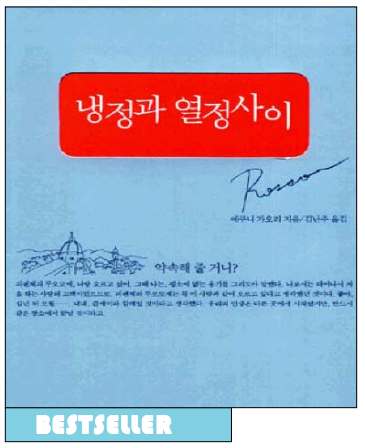
2. 503보병 1대대원들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공중강습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3. 503보병 1대대 C중대원들이 Rock Thrust 훈련 중 시누크에서 내려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4. ALTEP 훈련 중 C중대의 여광천 병장이 목표물을 향해 대전차용 자동 추적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

5. 훈련에서 돌아와 81mm 박격포를 정비하고 있는 본부중대 박격포 소대의 박성하 상병(왼쪽)과 Keith Long 이병

카투사 신문 장승모



BESTSELLER

냉정과 열정사이

에쿠니 가오리 / 소담출판사

어느 날 '하나의 소설을 번갈아 가며 함께 쓰기'로 한 두 사람의 작가. 주제는 영원한 테마인 사랑이다. 소설 '오 수정!'과는 달리 10년 뒤 재회를 가슴에 묻어둔 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헤어진 연인들의 인생을 그리는 이야기이다. 여자와 남자, 냉정과 열정… 서로 다른 두 권의 이야기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소설로 완성되는 독특한 릴레이 러브스토리이다.

WEBSITE

심리학과 함께하는 생활

zizz.x-y.net/psycho

대학 교양과목으로 심리학 관련 과목은 한번씩 다들 들어볼 것이다.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 이론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묘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심리학. 개체와 조직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심리학을 더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접속해보자. 생활속의 심리학부터 영화, 책속의 내용을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코너도 있다.

■ 문 화 공 간

부산국제영화제 6th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영화제의 열기로 부산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10월 2일 막을 올려 9일간 영화향연을 제공한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부산시민들은 물론이고 이를 관람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들뜨게 하였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일본 영화계의 거장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대표작 '도플갱어', 폐막작으로는 박기형 감독의 '아카시아'가 선정되었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3년만에 다시 해운대 수영요트경기장의 야외상영관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영화제 기간동안 영화제 관람객들을 위해 일곱 편의 야외 상영을 제공하였는데, 아름다운 부산의 밤과 낭만적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 상영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즐거움이었다.

영화제 기간동안 펼쳐지는 여러 행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홍보팀 스페셜 이벤트 담당 홍철영씨를 만나 이번 영화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영화제의 준비과정에 대해 홍철영씨는 "지난 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자마자 올해의 영화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특히 개막 전 두 달 동안은 이번 영화제의 스텝들에게 있어서 비상체제였다"고 말했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해운대 야외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영화제 관계자들의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부산국제영화제는 해를 더해갈수록 뚜렷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모 유명 일간지에 의하면 전세계에 존재하는 천 여 개의 영화제 중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미 세계 8대 영화제 안에 진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영화제의 순위 매기기를 떠나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 위상은 현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영화제를 관람하러 온 외국인들이 쉽게 눈에 띄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한 관람객들과의 만남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소수의 영화 매니아들만이 아닌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영화배우 명계남씨(오른쪽) 등 영화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창화 감독이 핸드 프린팅을 하고 있다.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역대 최대 규모인 61개국 250편의 작품이 이번 영화제에 선보였고, 국내 영화제 최초로 북한 영화를 상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만에 야외 상영을 재개하였다. 이 외에도 영화 감독의 시낭송회,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이름의 비평가가 선정한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야외 상영관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공연 행사 등이 개설되어 관람객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번 영화제를 위해 많은 부대행사를 준비하였다"는 홍철영씨는 "지난 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 상영에 중점을 두었지만 올해를 기화로 이제까지 축적된 힘을 이용,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고 말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 프로모션 플랜(PPP)'이라고 하여 프로젝트 마켓을 운영하는데, 이는 제작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아시아 감독들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마켓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비경쟁 영화제로서 작게는 아시아, 크게는 세계의 영화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액션영화의 선구자이자 한국영화의 국제화를 선도한 정창화 감독이 단연 두각을 드러내었다. 부산국제영화제 내 프로그램인 한국영화 회고전에서 그의 작품 중 8편이 마련되었고, 핸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영광도 가졌다. 핸드 프린팅 주인공은 세계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을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정창화 감독 외에도 스웨덴의 Jan Troell 감독, 루마니아의 Lucian Pintilie 감독이 올해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지난 한해동안 아시아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아시아 영화인을 선정,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이란 영화계의 거장 Mohsen Makhmalbaf 감독이 제 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부산은 다시 한번 '세계의 영화 중심지'로 태어났다. 남포동에 위치한 PIFF광장에는 매일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고, 야외 상영관을 포함한 여러 영화 상영관 및 PIFF 센터가 모인 해운대 역시 축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PPP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프랑스인 Julian Rousset씨는 "영화제 기간동안 하루에 적어도 세 편을 관람하였다"며 "여러 영화제들을 가보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활기 있고 생동감 넘치는 영화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계속 활기찬 모습을 기대한다"며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일, 국내외 많은 영화인들과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일간 영화에 푹 빠져있었던 관람객들은 한껏 아쉬움을 표시했고, 이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

상병 장승모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23 장

＊택시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행길에서 "택시 정류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초행길이나 지리를 잘 모를 때는 그 지역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죠.

Topic : "택시 정류장은 어디지요?"

"Where is a taxi stop?"

주제연구)

종종 정류장을 terminal 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terminal" 은 말 그대로 '끝 부분' 즉, 종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나 택시가 잠시 서는 곳은 stop 이라고 하죠. 그래서 bus stop 또는 taxi stop 이라고 하는 겁니다.

A: Excuse me, where is a taxi stop?

B: Sorry, I am a stranger here too. Why don't you ask at the information desk?

A: That's a great idea, thanks.

B: It's my pleasure.

번역)

A: 실례합니다. 택시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B: 죄송하지만, 저도 이곳엔 처음 이거든요. 저기 안내 데스크에서 여쭤 보시면 어떨까요?

A: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B: 별말씀을요.

덧붙여)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You are welcome 을 많이 쓰지요? 언어의 맛을 살려서 It's my pleasure 라고도 해 보세요. 분위기가 새로워집니다.

＊버스는 매 시각 10분에 옵니다.

버스나 기차 schedule 을 보면 종종 '매시 10분 도착'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은 신경이 쓰이시죠? 이번 연습을 통해 확실히 해결합니다.

Topic : "버스는 매시 10분에 와요."

"The bus comes ten minutes after every hour."

주제연구)

영어로 every hour 는 '매 시각' 또는 '같은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en minutes after every hour 는 "매 시각이 지난 10분"이라는 거죠.

A: What is the bus schedule to the city center?

B: The bus comes ten minutes after every hour.

A: What time is it now then?

B: It's 10:50. We have to wait 20 minutes more.

번역)

A: 시내 중심가로 가는 버스 시간표가 어떻게 되나요?

B: 버스는 매시 10분에 옵니다.

A: 그럼, 지금은 몇 시 인가요?

B: 10시 50분 입니다. 20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덧붙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몇 개만 더 연습해 보면 '10 시 10 분 전' 은 간단히 "It's 10 to 10." 이라고 하면 되지요. 그리고 2시 12분은 "It's 12 after 2."라면 됩니다.

＊요금은 얼마입니까?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요금을 냅니다. 이런 경우 '요금'에 해당하는 단어가 fare 입니다.

Topic : "요금은 얼마입니까?"

"What is the fare?"

A: What is the fare to downtown?

B: $12 for adults and $7 for kids under 12.

A: Let me have two adults and one for a kid.

B: That's $31 all in all.

번역)

A: 시내까지 요금은 얼마입니까?

B: 성인은 $12 이고 12세 이하 아이들은 $7 입니다.

A: 성인 두 명과 아이 표 하나 주세요.

B: 모두 $31 입니다.

*(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수단) 어디서 갈아타요?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을 보면 거미줄 모양으로 좍 깔려있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갈아타요?' 라는 표현이 몹시 중요합니다.

Topic : "어디서 갈아타요?"

"Where do I transfer?"

주제연구)

transfer 라는 단어는 '~을 옮겨 타다, 또는 갈아 타다' 입니다.

A: Can you help me?

B: Sure, what can I do for you?

A: If I go to City Hall, where do I transfer?

B: At Central station.

번역)

A: 저 좀 도와 주실래요?

B: 물론이죠, 뭘 도와 드릴까요?

A: 제가 만일 시청에 간다면, 어디에서 갈아 타야 하지요?

B: Central 역에서 갈아 타시면 됩니다.

덧붙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May I help you?" 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하면 됩니다.

＊어디서 내리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지방을 방문하면 길을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곳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번에는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 '어디서 내리는지 가르쳐 주세요'에 대해 연습합니다.

Topic: "어디서 내리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Will you tell me where I should get off?"

다음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I have to go to City market this afternoon.

B: Then, take the number 66 bus South.

A: And where should I get off?

B: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ask the driver.

번역)

A: 오늘 오후에 City market 에 가야 하거든요.

B : 그럼, 남쪽으로 가는 66번 버스를 타세요.

A: 어디서 내려야 하는 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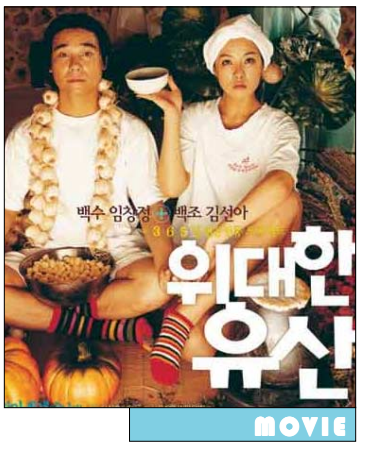
B: 운전 기사분께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지요.

덧붙여)

The best thing 이 들어가는 표현을 조금 더 연습해보면

1) The best thing you have to do is studying hard.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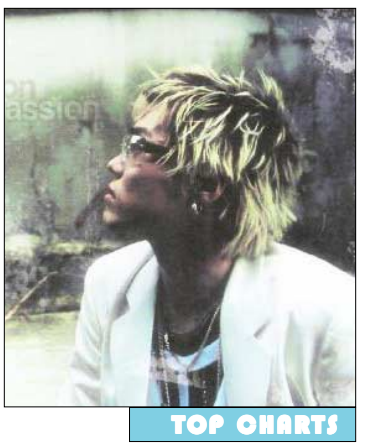


위대한 유산

감독: 오상훈

주연: 임창정, 김선아

백화점 시식회, 형 등쳐먹기 등등 백수생활 지침서에 따라 열심히 살고 있던 '창식'. 탤런트가 꿈이지만 어설픈 연기력으로 매번 낙방하는 '미영'.100원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두 사람. 우연히 황 노인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같이 목격하게 된 두 사람은 다음날 목격자에게 사례금 500 만원이 지급된다는 플랙카드를 보고 서로 목격자를 자청하고 나서는데....



휘성

With me

2.정말사랑했을까/브라운아이드소울
3.자꾸만/이기찬
4.세상 끝까지/이지우
5.이별하는 날/서후
6.오리 날다/체리필터
7.I swear/S
8.용서할께/비쥬
9.관계/WAX
10.내안의 그대/서영은
11.내일해/이정
12.잊을께/윤도현밴드
13.Missing you/Fly to the Sky

항상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한지혜

드라마 '내 인생의 콩깍지'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여름 향기'로 친근해진 연기자 한지혜씨를 태릉의 한 세트장에서 만났다. 본 기자가 운전을 하여 도착한 세트장에서는 이미 뮤직비디오 촬영이 한창이었다. 기자가 도착하자 그녀는 환한 웃음으로 반겨 주었다. '안녕하세요'를 맡은 후 첫 인터뷰라는 부담감과 한 시간이 넘는 운전으로 인해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터뷰를 마친 기자는 더 왕성한 활동을 할 그녀를 떠올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트장을 나섰다.

-자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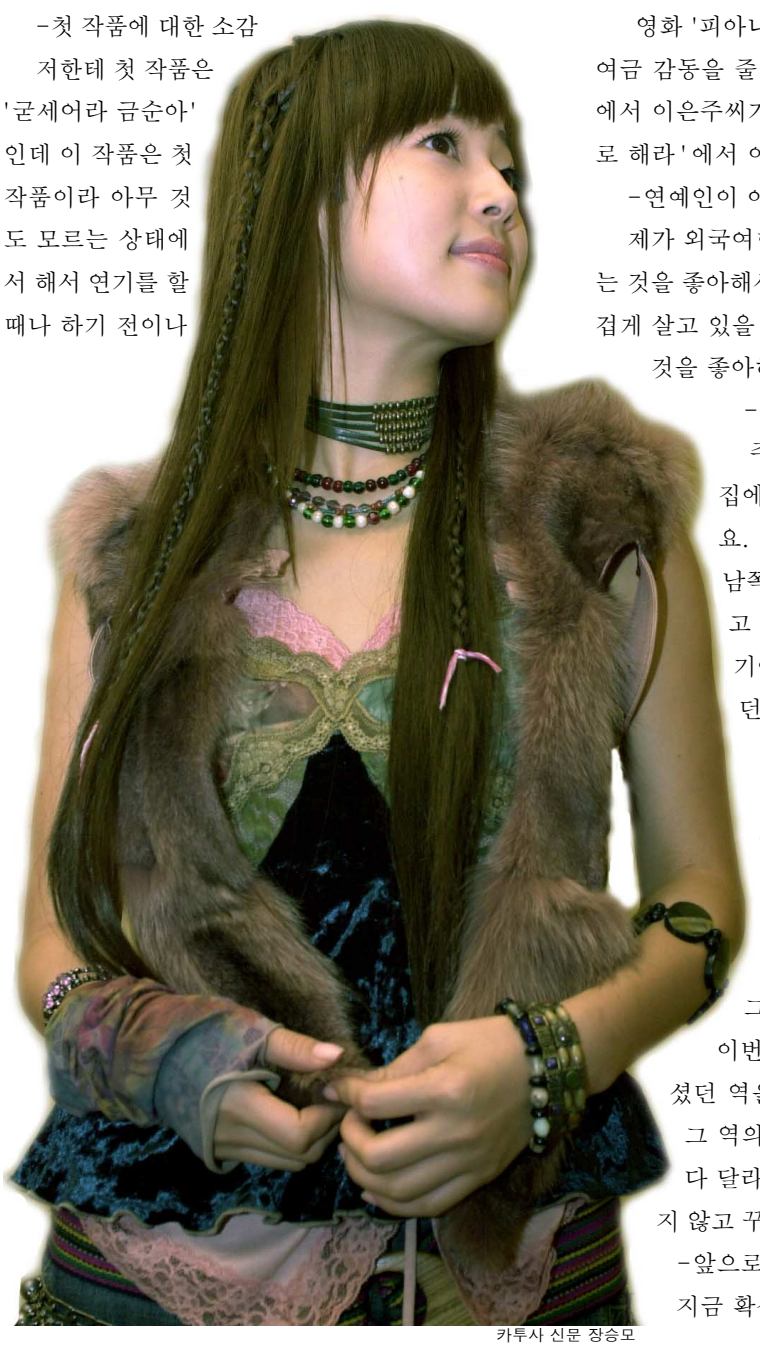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지혜입니다. 1984년 6월 29일에 태어났고,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1학년 재학 중 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굳세어라 금순아'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그 후에 '싱글즈'에서 이범수씨 여자친구로 나왔었고, 드라마 3편 '내 인생의 콩깍지', '남자의 향기', '여름 향기'를 이어서 하게 됐어요.

-첫 작품에 대한 소감

저한테 첫 작품은 '굳세어라 금순아'인데 이 작품은 첫 작품이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서 연기를 할 때나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영화인 '싱글즈'를 할 때 이범수씨의 연기를 보고, "연기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 드라마 '내 인생의 콩깍지'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마가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재미있지만은 않고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 인생의 콩깍지'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연기를 하며 배우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카투사 신문 장승모

-연예인이 된 후 달라진 점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 개인생활이 많이 제한되고 항상 조심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는 무감각하고 털털하면서 편하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성격이었는데 연예인이 된 후로는 예민해져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항상 조심하려고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제가 모자를 쓰고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절 알아보는게 사실 아직도 신기해요.

-군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2년동안 자신을 희생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를 선택한 용기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

영화 '피아니스트'의 주인공처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역할이요. 그리고 '연애소설'에서 이은주씨가 맡았던 역할도 해보고 싶고 '네 멋대로 해라'에서 이나영씨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외국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마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핑계로 즐겁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촬영이 없을 때 하는 일

주로 모니터를 많이 해요. 촬영 끝나고 집에 오면 다른 드라마들 모니터를 주로 해요. 요즘엔 '상두야 학교가자'나 '태양의 남쪽' 등 볼 수 있는 드라마는 최대한 보려고 노력해요. 다른 작품들을 보는 것도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못 봤던 영화들을 빌려 보기도 해요.

-존경하는 연예인

존경하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닮고 싶은 연예인을 들자면, 전도연씨에요. 외모와 스타일보다는 전도연씨의 연기스타일을 닮고 싶어요. 전도연씨의 연기는 팔색조처럼 다양한 변화를 하면서, 그 변화가 전혀 어설프지 않고 완벽해요. 이번에 '스캔들'도 그래요. 전도연씨가 하셨던 역을 보면 비슷한게 없고 다 다르거든요. 그 역의 캐릭터가 다를 분더러 손짓 하나까지 다 달라요. 그리고 극에 잘 스며들어서 어색하지 않고 꾸밈이 없이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지금 확실히 딱 정해놓은 것은 없구요, 좋은 작품, 저한테 맡는 좋은 역할이 생길 때 까지는 공부하면서 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드라마로 다시 찾아뵐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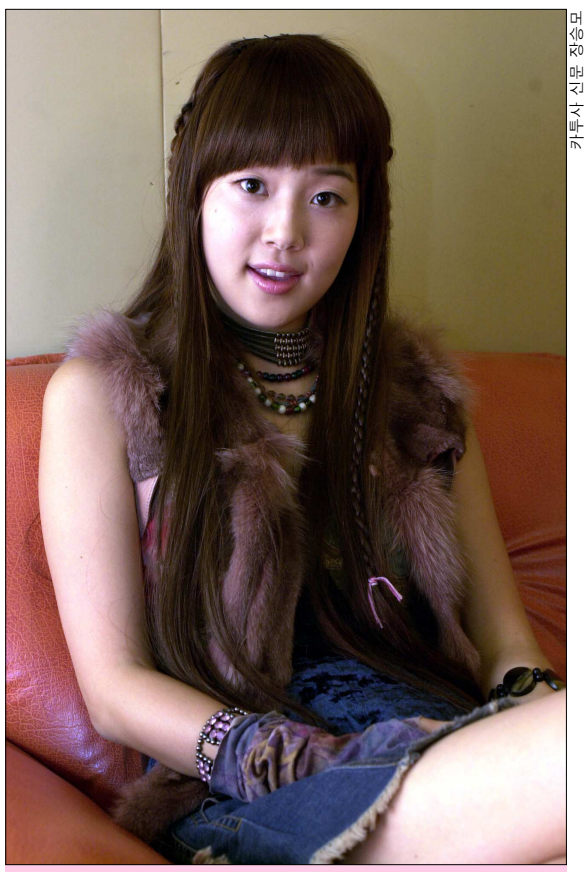
-카투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군대도 시험 보시고 들어 가셔서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서 외교관 역을 하시잖아요, 웬지 귀공자 분들만 계실 것 같고 깔끔하고 똑똑하고 멋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2년이라는 시간이 긴데 그 기간동안 힘내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군대생활하세요. 마지막으로 저, 지혜 많이 사랑해주세요! ■

이병 김택현



카투사 신문 장승모

프로필

생년월일: 1984년 6월 29일

키: 170cm

학교: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취미: 영화감상, 플룻, 댄스